

과도한 스포츠 내셔널리즘 고찰 : 류현진 보도를 중심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공식 홈페이지[losangeles.dodgers.mlb.com] 캡처



글. 권오상
전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부장

들어가며

류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12승을 달성한 8월 14일 이후 13승에 도전했던 일주일(8.16.~8.22.) 동안 국내 중앙지와 지방지, 전문지 및 방송에서 류현진의 이름을 넣어 보도한 뉴스건수는 2,728개였다. 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같은 기간 폭염을 보도한 건수 1만 4,262건의 19%에 해당하는 양



추신수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100호
홈런의 순간
(출처 : 스포츠, 「추신수의 통산 100호
홈런이 터지는 순간」,
2013년 8월 28일자)

이며,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내 농민들의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뭄에 대한 보도건수 3,746건의 72.8%에 이른다.

메이저리그 기사 80%가 류현진 보도

스포츠뉴스에 국한해 류현진에 대한 보도량을 조금만 분석해보자. 역시 같은 기간(8. 16.~8. 22.) 미국 메이저리그에 대한 보도 3,409건 가운데 류현진을 다룬 기사가 80%를 차지했다. 추신수에 대한 보도가 류현진의 효과와 동반상승함으로써 메이저리그 뉴스의 38.5%(1,412건)에 이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추신수에 대한 보도는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5건이었다. 이 일주일 사이에 보도된 전체 스포츠 뉴스가 1만 7,121건이었는데, 이 수치가 폭염 보도의 수를 넘어 서고 있다는 것은 스포츠가 일상적인 저널리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쨌든 이 가운데 류현진 한 개인에 대한 보도가 15.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류현진의 미국 진출을 허용했던 2012년 10월 29일부터 올 시즌 다저스의 개막전이 열리기 전인 올해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국내 언론이 류현진의 이름을 넣어 보도한 건수가 3만 102건이었다. 그런데 시즌 개막일인 4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 건수는 두 배가 넘는 6만 4,163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445개의 류현진 관련 기사가 쏟아진 셈이다(이 통계들은 신문과 잡지, 방송을 포함한 온라인뉴스 통합 스크랩 서비스 아이서퍼(eyesurfer)에서 수집했다).

류현진에 대한 국내 언론의 이런 뜨거운 관심과 쓸림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투수로서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류현진의 활약상을 보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물음 자체가 오히려 어색하

메이저리그 진출 환송식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류현진
(출처 : 스포츠조선, 「아듀 류현진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13년 1월 5일자)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프랑스 사회학자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 1843~1904)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왜 언론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류현진의 활약에 환호하는 것일까라고 물음표를 던져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한 얘기로 너무 지나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는 적당히 보도해야 한다는 정도로 점잖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가볍게 이 문제를 지나치기엔 이 현상들은 너무나 우리들의 생활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어김없이 닷새 만에 찾아오는 그의 선발등판 때마다 텔레비전 앞에 서게 되거나 스마트폰을 열게 되는 생활패턴의 형성, 그의 활약을 통한 대리만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정보의 공유, 나아가 정보의 소비까지를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며, 오히려 매우 중요한 시안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인간이 지구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구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과 별, 태양의 궤도와 움직임을 이해하고 나면 지구가 어떤 궤도로, 어떤 빠르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린 미디어가 류현진을 왜 이

렇게 보도하는지, 류현진은 왜 미국으로 갔는지, 그의 활약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와 메이저리그를 둘러싼, 우리 생활에 긴밀하게 결합된 사회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구조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셔널리즘이라는 정신의 세계를 생산하는 공간과 시간이며, 그 내셔널리즘으로 인해 우린 애국적 열정으로 류현진에 환호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서양 스포츠의 세계적 확산

왜 스포츠는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와 결합해 더 강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스포츠와 내셔널리즘은 언제 생겨났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쟁적인 신체활동인 스포츠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으며, 고대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보편적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물역사적 일반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스포츠 특성을 과거의 것과 구분지어 설명해줄 수 없다. 따라서 고대나 중세와 구분되는 근대 이후의 스포츠를 논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앨런 거트만(Allen Guttmann)의 '근대스포츠의 본질'은 세속화·기회균등·전문화·합리화·관료화·수량화·기록추구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7가지의 특성만으로 근대스포츠를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은 현재의 스포츠가 고도로 국제화·상업화·산업화·세계화·초국화·복잡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로는 1978년 피파(FIFA) 월드컵에 출전한 해외파 출신 선수들의 비율은 11.4%였는데, 1990년 27.1%, 2006년에는 53.1%로 급증했다는 연구(Frick, 2009)가 있다. 박지성이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공식 출범했던 1992~1993년 시즌에 이 리그에 참여한 선수들의 해외 국적 수는 27개(외국인 선수 비율 30.3%)였지만 이번 시즌은 64개(외국인 선수 비율 66.7%)에 이른다(transfermarket.co.uk, 2013). 류

현진과 추신수가 뛰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을 제외한 15개국 241명(외국인 선수 비율 28.2%)의 외국인 선수가 올 시즌 30개 구단에 등록되어 있다(MLB.com, 2013).

10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안방의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친숙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프로페셔널(직업화된) 스포츠인 축구와 야구의 국제화가 동양이 아닌 서양,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초등학교(당시엔 국민학교) 시절이었던 1960~70년대엔 어느 학교 운동장엘 가더라도 어김없이 씨름장이 있었지만 지금 씨름장이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프로스포츠로 탄생한 민속씨름이 서양의 프로스포츠 시장 뒤편에서 실패로 막을 내린 것과는 반대로 요즘 일선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스포츠클럽의 스포츠는 모두 서양에서 도입된 것들이다.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스포츠뉴스가 이런 영역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우리 서양스포츠의 세계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때론 다정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런 서양스포츠가 민족성이 남달리 강한 한민족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 ‘대~한민국!’과 더불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은 한국 근·현대스포츠의 가장 큰 사건이자 역설과 모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근대 이후의 스포츠는 서구화와 근대화의 결과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서구 중심적 전개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스포츠 내셔널리즘에 관해 얘기하려는 지금 우리는 서양화된 스포츠로 몰입하고 서양의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열정과 열광의 환희를 느끼고 즐기고 있는 우리 현실의 객관적인 문턱을 갓 넘었을 뿐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을 응원하기 위해 시청광장에 모인 붉은 악마들
(출처 : 스포츠서울, 「2002한일월드컵 10주년,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2012년 5월 29일자)

근대 민족주의와 스포츠의 결합

스포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족 또는 민족주의는 그럼 무엇이
이며,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이 문제는 정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 기원
과 전파에 대한 성찰』(윤형숙 역, 나남출판, 2002)에서 제시한 민
족주의의 세 가지 패러독스 가운데 세 번째 역설만큼이나 난해하
고 풀기 어렵다. 그는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위력이 있는 반
면, 철학적으로는 그 내용이 빈곤하고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민족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지
만 그 내용의 깊이란 각양각색인데다, 최소한 자기방어적 이데
올로기부터 시작해 배타적이며 국수주의적 파시즘으로 치닫기
까지 한다.

이런 이유로 다른 주의들(isms, 사상)과 달리 민족주의는 홉스
(Hobbes), 토크빌(Tocqueville), 막스(Marx), 베버(Weber)와
같은 대사상가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앤더슨은 주장했다. 그런
데 그는 민족이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 자기 동료
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e)
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벅컴
(Beckham)의 활약에 영국인들이, 펠레(Pele)의 활약에 브라질
인들이, 메시(Messi)의 활약에 아르헨티나인들이, 박지성의 활
약에 한국인들이 서로 잘 몰라도 마치 오래 같이 생활해온 가족처
럼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환호하는 현상은 바로 앤더슨이 말한
‘친교의 이미지로 서로를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앤더슨의 관점이 학계와 세간에 흥미롭게 전파된 이유는 출판
과 인쇄 자본주의, 즉 근대적 미디어산업이 특정언어와 지역성과
결합함으로써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
다고 설파한 데 있다. 류현진의 시즌 10승, 추신수의 시즌 20호
홈런 등의 소식에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흠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들이 서로 만나거나 통신을 하지 않고도 미디어를 통해 민족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비슷한 환희를 느끼는 이유이다. 이렇게 근대 시점에서 언어와 인쇄술의 결합을 통한 상상의 공간이 인간의 마음 속에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저절로, 또는 자발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선행적 환경과 맥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이 종족, 조상, 종교, 언어, 영토 등의 원초적 유대 위에 성립된다고 보는 원초론(primordialism)은 민족이 국가에 선행하고, 민족적 유대감은 국가나 정치형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강명세 역, 창작과비평사, 1994)에서 ‘만일 유럽에 있었다면 역사적 민족들(historian nations)로 인지되었을 중국·한국·베트남과 같이 상대적으로 영구한 몇몇 정치체가 어찌면 원초론적 관점에 어울리는 민족으로 분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민족을 근대화의 산물로 보는 도구론(instrumentalism)은 ‘민족주의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이데올로기로서, 국가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개념을 상징한다(임지현, 1994)’고 주장한다. 동아시아처럼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단일민족적 성격이 오래 지속된 경우가 전자라면,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으로 근대국가의 출현과 민족의 형성이 두드러졌던 유럽의 경우가 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단일민족을 주장하고 강조한다고 해도, 원초론적 민족주의의 강조와 주장은 근대적 개념의 민족국가 이전 단계라는 제한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근대 이전의 민족은 지금과 같이 명확한 영토와 국가라는 정치체에 기반해 국제적 경쟁을 벌이는 인간집단의 단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홉스봄의 표현처럼 민족(주의)의 고향 유럽에서 만개한 민족국가의 경쟁적 주도권 싸움은 앞서 언급한대로 1차 대전을 야기했

고, 이는 2차 대전 발발 이전까지 유럽의 민족주의를 완성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에서 민족국가의 구도가 차차 형성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 국가 중심의 세계구도는 제국주의와 세계전쟁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근대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등장한 19세기 말부터 스포츠는 자연스럽게 민족국가 간 경쟁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적 형태의 민족국가의 탄생, 그리고 이 민족국가 단위의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지구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1986년부터 시작된 근대올림픽과 1932년부터 올림픽과 결별해 국가대항적 프로스포츠를 외치고 출범한 월드컵 축구는 민족주의를 전쟁보다 더 친숙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화적 매체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류현진과 추신수, 박지성 등 해외파 스포츠 스타선수들의 활약에 온 국민이 애국적 열정으로 응원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일은 이런 거시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것이다. 즉,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근대적 시장질서가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민족국가에 작동하는 다양한 현실 가운데 극히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이 1934년과 1938년 월드컵 축구에서 두 차례 우승한 사실, 독일 히틀러 정권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종합우승한 사실은 스포츠가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민족주의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프랑스 극작가 장 지로두(Jean Giraudoux)가 ‘축구의 영광’이라는 글에서 “1933년 우리들 세계에서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직은 전쟁과 스포츠, 둘 밖에 없다”고 말한 유명한 표현은 스포츠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전쟁만큼이나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역시 1945년 ‘스포츠 정신(The Sporting Spirit)’에서 “불순한 의도로라도 막대한 돈을 벌려면 이스라엘-아랍, 독일-체코, 인도-영국, 러



프랑스의 극작가 장 지로두
(출처 : NNDB[www.nndb.com])



시아-폴란드, 이탈리아-유고의 축구경기 시리즈를 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민족국가간의 갈등과 혐오가 극에 달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권오상, 2011). 치욕적인 일제식민지 경험을 겪은 한국이 일본과의 모든 스포츠경기에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어찌면 일본보다 더 열렬한 관심과 응원, 열정을 쏟는 것은 이런 민족 간의 갈등과 모순이 뿌리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내셔널리즘의 효과와 이해관계

지금까지 스포츠와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찰떡궁합처럼 잘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았다. 그럼 스포츠 민족주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것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이해로 볼 수 있다. 가령 2006년 독일월드컵의 경우 32개국의 팀만이 본선에 진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 총 텔레비전 시청인구가 262억 9천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구촌 인류에게 주는 재미와 감동의 효과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월드컵은 이런 엄청난 시청인구의 단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적 모순을 결코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거나 은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외국인 선수 비율이 유럽 프로축구 5대리그 중 66.7%로 가장 높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잉글랜드를 뺀 전 세계 64개국에서 온 342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10명이 진출해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EPL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아시아에만 4,100만 명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EPL의 해외중계권료는 200개 이상의 나라를 대상으로 2007년 기준 3년간 1조 642억 원이었다

(Sheerwood, 2007). 이런 액수는 올 시즌 EPL의 해외중계권료를 포함한 총 액수 3조 7천억 원과 간접 비교하면 연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프리미어리그가 전 세계의 시장으로부터 중계권료만 챙겨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거기엔 여행과 경기장의 입장, 해당 구단의 유니폼과 같은 상품구매 등 경제효과는 쉽게 측정되지 않는다.

영국의 스포츠사회학자 줄리아노티(Giulianotti)가 아시아선수 사들이기와 같은 축구의 초국적 노동 형태, 즉 축구 이외의 직접 투자의 한 형태로서 외국인 선수의 영입은 해당 구단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그 클럽의 매출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까지 코리안 메이저리거는 추신수 1명으로 근근이 체면치레를 했던 한국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은 올 시즌 류현진의 가세와 성공으로 마치 미국 프로야구를 평정하는 듯한 분위기로 돌변한 듯 보인다. 물론 올해의 경우 MBC스포츠플러스가 메이저리그와 연간 45억 원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계권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른바 ‘대박이 터졌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기는 하다. 하지만 류현진의 소속팀이 전통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의 홈팀이라는 점, 향후 중계권료 인상의 조짐이 농후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미 미디어의 과열된 경쟁적 보도가 보여주듯이 메이저리그의 잠재적 시장이 박찬호 이후 국내에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갈 것인지의 명약관화(明若觀火, 편집자 주 :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분명하다는 말)한 일이다.

그러므로 최고기량을 갖춘 상대적으로 후진국 출신의 엘리트 선수들이 해외의 유명한 리그로 진출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표면적 대리만족을 가져오는 대신, 막대한 중계권료의 지출, 해외 스포츠투어와 관련 구단에 대한 다양한 상품 구입 등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심국에 더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민족주의가 초래하는 효과의 이중성이며 역



설이자 모순이다. 이런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조장하고 자극하는데 앞장서는 분야는 단연코 '미디어'다. 미디어는 앤더슨이 언급한대로 '상상의 스포츠 민족공동체'라는 환상을 거의 매일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주입한다. 과연 국내 미디어는 어떻게 류현진과 같은 메이저리거의 뉴스를 다루고 있는가?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 스타디움
(출처 : 위키미디어[commons.wikimedia.org])

감정 자극과 반복 · 모방 보도행태

방송이 시청률에 의존해 콘텐츠의 성공여부를 평가받는다면, 신문을 포함한 모든 뉴스는 온라인시대에 걸맞게 클릭수로 그 영향력과 진실성이 가려지게 마련이다. 물론 논란이 벌어지는 기사들이 반드시 옳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뉴스야말로 내용의 건강성 여부를 떠나 좋은 콘텐츠로 평가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뉴스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피해 점차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들을 다루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류현진과 관련해 가장 민족주의적 보도 논란이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 일본인 메이저리거인 스즈키 이치로와의 맞대결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친 이치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가령 <일간스포츠>와 <JTBC>의 6월 20일 통합 온라인뉴스에서는 제목을 「NYY 이치로 망언 논란, '도발 or 자신감 표현?'」으로 붙임으로써 기사의 실제 내용에 비해 자극적인 표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치로의 망언 논란이라는 문구에 아무런 인용표시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치로의 발언을 망언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 이 기사는 이치로가 “눈을 감고 쳤다”는 발언에 대해 망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칫 류현진이나 다저스 입장에서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피홈런 투수 당사자 류현진이나 해당 구단 다저스의 어떤 반응도 적합한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기자 자신의 추측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감이 강한 이치로의 성향과 최근 성적 부진을 감안하면 ‘자신감’을 나타낸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또 다른 기자 자신의 추측을 사실처럼 묘사했다. 이 내용에서는 이치로의 자신감과 최근의 성적 부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은연중에 이치로를 비하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보도의 진짜 문제점은 당사자의 발언 진위를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그 의도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보다는 그 의도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다시 해석하고 단정함으로써 이중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가서는 일본 신문 <산케이스포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와전’이 났을 가능성이 큰 이유”라고 묘하게 꼬리를 감추고 있다. 이 기사는 결국 오해의 소지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로는 앞선 표현에서 나타났듯이 기자가 의도적으로 ‘와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발언 당사자에게 돌리는 모순도 함께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마치 군중심리의 효과를 보는 듯한 세계가 펼쳐진다. 「일본관 주먹감자」 이치로, “눈 감고 스윙” 발언 도마(일요신문), 「역시 ‘입치료’, 이치로 “류현진 공 눈감고 홈런 쳤다” 망언(헤럴드경제), 「이치로는 입치료? “류현진 공 눈 감고 쳤다” 망언(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잇따랐다.

그러나 후폭풍이 있을 법한 사건을 놓고 언론사 간의 경쟁은 곧 진위여부 논란이라는 2단계로 나아갔다. 인터넷 스포츠뉴스 <오

NY Yankees 이치로 망언 논란. ‘도발 or 자신감 표현?’

【산케이스포츠】 도쿄 2013.06.20 15:20



2013년 6월 20일자 일간스포츠 기사 캡처



센) (OSEN)이 ‘류현진에 홈런’ 이치로 또 망언? 알고보니…’라는 논란을 잠재울 기사를 내자, <조선일보>가 이를 그대로 인터넷으로 받아 게재했고, 정작 논란을 일으켰던 언론사 <일간스포츠>와 <JTBC>는 「오해로 빚어진 NY Yankees 이치로 망언 논란 ‘시끌’이라고 정정성 보도를 했다.

이 2단계 보도에서는 사건을 추스르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상업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오센>의 기사를 전채한 <조선일보>는 다시 자사의 기자 명의로 「이치로, “눈감고 류현진 공 홈런 쳤다” 망언 사실일까?」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눈감고 휘둘렀다”는 이치로 발언 논란」이란 기사를 썼던 통신사 <연합뉴스>는 논란기사가 전 언론사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3시간 뒤 「이치로 “눈감고 쳤다” 논란… 실은 “과감하게 쳤다”(종합)」는 식의 해프닝성 기사로 정리했다. 결국 이렇게 국내에서만 유독 ‘논란’이 생긴 이 현상은 <일간스포츠>가 21일자 최종판 신문에서 「“눈 감고 스윙했다” 이치로 발언 또 논란」으로 나온 반면, 「이치로 망언’ 번역 해프닝」(스포츠한국), 「“류현진, 상대하기 싫은 투수” 이치로 망언 없었다」(스포츠조선)는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류현진 상대하기 싫은 투수」라는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 스포츠뉴스 <오센>이 먼저 낸 기사인데, 이 글의 첫부분이 “망언은 없었다. 칭찬만 가득했다”로 시작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의 상반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이치로의 발언이나 인용의 출처인 <산케이스포츠>의 맥락을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 문제점을 겨냥한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치로는 ‘류현진을 상대하기 싫은 투수’라고 에둘러 말해 좋게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류현진은 ‘이치로가 잘 쳤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언론은 두 선수의 이런 진실성이 담긴 표현보다는 ‘망언’이라는 역사적 한·일 민족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주의적 재현 관행을 통해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담론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6월 20일자 연합뉴스 기사 캡처



이런 논란 기사의 경쟁구도 속에서 버젓이 나온 「이쉽게 끝난 뉴욕 정벌」(국민일보) 기사는 마치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정벌한 것처럼, 이젠 류현진을 대리인으로 보내 한국이 뉴욕을 ‘정벌’이라도 하려는 듯한 군국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 사고가 담긴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용어를 통한 일상화된 공격적 표현은 이중적 성격을 내포한다. 우선 근대 이후 전쟁을 일으킨 대부분 선진국의 언론에서 사용하던 표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후진국의 미디어 세계에 스며든 것이며, 전쟁의 피해국인 후진국들이 민족 감정 속에 내재된 열등의식을 이겨보려는 의도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용어들이다.

어쨌든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이런 국내 언론의 ‘냄비 보도’ 양상은 도대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런 진지한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대로, 별로 이상해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이 실제로는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 내용의 문제성 여부를 떠나 이치로의 말 한마디 또는 일본 수상이나 각료,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한국의 국민과 언론이 들썩들썩한다는 것은 자극받기 쉬운 한민족 감정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는 현실의 거울을 비쳐줄 뿐이다. 스포츠의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공감대, 최고의 세계를 먼저 열어



간 선진국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발전할 것이라는 발전주의의 환상과 함께 언론과 대중은 야구의 메이저리그, 축구의 프리미어리그에 매우 깊숙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겠다.

스포츠 민족주의 보도행태의 심각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인식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8월 23일 류현진이 시즌 13승에 도전하기 위해 마이애미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쓴 것에 대해 「시즌 13승 달성 비상」, 「팀원들 배려, 자체 격리」, 「팀 동료 위해 마스크착용 눈길」, 「류현진 감기 소식에 팬들 응원 봇물」 등의 기사들이 쏟아진 것은 실제 스포츠가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행동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보니 류현진과 관련된 기사가 부족할 경우, 즉 선발과 선발 등판 사이의 기간엔 「류현진도 오승환도 2차지명 대박」이라며 2차 지명 선수의 훌륭한 활약을 드러내려 노력하는가 하면, 「ML(메이저리그) 기자 PS(포스트시즌)진출팀 류현진 공략법 준비해야」 등 시의성이 없는 무리한 기사를 내기도 한다.

이번에 류현진과 이치로의 경기를 통해 해프닝성으로 나타난 '망언' 촌극은 그나마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애쓰는 경쟁사들의 노력으로 사태가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든 우리의 내면에 불씨가 지펴지기만 하면 활활 타오를 정신적 감염의 세계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의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우리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런 인식의 지평이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산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실천적으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급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에 대한 언론의 경쟁주의적 보도행태의 극복 노력이다. 아쉬운 것은 현장의 전문가들인 스포츠언론인들이 이런 문제의 공감과 해결방안을 위한 어떤 공동의 가치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포츠내셔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사회학이나 철학의 분야에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상아탑 안에서 논리와 텍스트로서 문제점을 설파할 뿐 현장과의 연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현대인들은 복잡화, 초국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속화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근대 또는 탈근대(post modern)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한국이 아무리 초고속 정보통신을 통해 세계를 리드한다고 해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착시적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1~2명의 메이저리거, 서너 명의 프리미어리거를 배출한다고 해서 한국의 스포츠 세계가 결코 선진국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극소수의 엘리트 선수의 해외 진출이 국내 언론사들의 콘텐츠 생산능력과 시스템의 종속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국내 스포츠에 대한 콘텐츠의 약화 우려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와 염려가 요구된다. 페어플레이를 통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포츠가 갈수록 경쟁과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스포츠미디어 종사자들이 스포츠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류현진과 추신수
(출처: MK 스포츠, 「류-추 재대결,
성사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
2013년 8월 28일자)